

게시판



**인드라망 불교강좌**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9월 29일과 10월 6, 13, 20일 서울 양재동 교육센터에서 불교강좌를 진행한다. 교육센터 마련 후 첫 번째로 마련된 이번 강좌는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각목 스님이 '부처님의 수행법'이란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또 12월 겨울강좌에서는 상임대표 도법 스님을 강사로 한 '부처님의 생애' 강연도 펼쳐진다(사진). (02)576-1886

**전통문화체험** 서울 법륜사는 9월 4일~12월 18일 농촌지역의 문화적 소외계층인 노인 및 어린이, 소년소녀 가장가족 등을 대상으로 불교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기초지식과 의미를 습득하는 전통문화체험을 실시한다. 명절을 제외한 매주 일요일 10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02)733-5367

**선우회 30주년 기념 바자회** 수원 봉녕사는 9월 7~8일 경내에서 선우회 30주년 기념 바자회를 연다. 스님들이 직접 만든 생활필수품과 밀반찬, 한지공예로 만든 소품과 명주 수의도 선보일 예정이다. 수익금은 장학기금과 봉녕사 불사금으로 쓰여진다. (031)256-4127

**어르신 신특사 기행** 서울 육수종합복지관은 9월 9일 어르신들을 모시고 신특사와 목야박물관, 세종대왕릉 등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전통문화체험 나들이를 진행한다. (02)2282-1100

20면 상시 퍼즐 정답

대	승	경	고	시	만
무	행	정	고	시	
량		관	지		
수			탄	허	
경	신	기		심	
기	계	체	조	탄	
버	루	공	청	회	



민화 가운데 가장 많은 화조도

## 소박하나 도발적인

서울역사박물관 '반갑다! 우리민화'展

10월 3일까지 日 소장작품 등 120여점 선보여

해학과 과격, 토속 등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전통 그림 '민화'를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김우림)은 9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반갑다! 우리 민화'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본민예관 등 일본소재 5개 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민화 120여점이 함께 선보일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해방 전 일본인 야나기 무네요시가 수집해 조선 민화 수집 붐을 불러일으켰던 명작들로 알려져 있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조선 민화의 예술적 가치를 인식하고 처음으로 미술 평론의 대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화려한 자수십장생도병풍과 근대 추상화를 연상시키는 화조도8폭, 빈책이는 눈동자를 네 개나 가지고 있는 까치호랑이그림, 궁중화풍을 연상시키는 책가도, 총(忠), 예(禮), 의(義) 등의 글자를 그린 문자도 등이 있다. 또 민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궁중화화 작품으로 운현궁에 보관되어 오던 괴서모란도8폭 병풍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02)724-0145

● **화조도**: 민화 가운데 작품이 가장 많으며 꽃과 함께 노는 한 쌍의 새를 소재로 한 그림이 많다. 화조도는 매화·동백·진달래·개나리·버드나무 등과 봉황·원앙·공작·학·제비·까치 등을 물이나 바위와 함께 그렸다. 이 밖에도 작약·월계·모란·옥잠화·수선·난초에 나비나 메뚜기·꿀벌 등을 그린 초충도(草蟲圖)와

토끼·말·소·호랑이 등을 산수 속에 표현한 영모도가 있다. 이 소재들은 단독으로 그려지는 경우도 많으며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꽃도 단독으로 그려 흔례식의 대례병(大禮屏)에 많이 사용했다.

● **호작도**: 소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까치와 그림에서 이를 바라보는 호랑이를 소재로 한 그림이다. 수호신적인 역할을 했던 사신도(四神圖)의 한 변형. 호작도는 잡귀의 짐벌이나 액을 막는 목적으로 그려졌다.

● **십장생도**: 장수(長壽)의 상징인 거북·소나무·달·해·사슴·학·돌·물·구름·불로초를 한 화면에 배치하여 그린 그림이다. 세화(歲畵)로 그려지기도 하고, 화간잔치를 장식하는 수연병(壽筵屏)으로 쓰이기도 한다.

● **문자도**: 글자의 의미와 관계가 있는 고사 등의 내용을 자획(字畵) 속에 그려 넣어 서체(書體)를 구성하는 그림. 수(壽) 또는 복(福)자를 도식화한 수복도와 효(孝)·제(節)·충(忠)·신(信)·예(禮)·의(義)·염(廉)·치(恥)를 도식화한 효계도(孝悌圖)는 교화음으로 제작되어 주로 어린이방을 장식하였다고 한다.

● **책가도**: 책거리라고 하는데, 책을 중심으로 한 문방사우도(文房四友圖)나 문방구도에서 온 것이다. 책뿐만 아니라 책과 관계없는 술잔·바둑판·담뱃대·부채·향아리는 물론이고 여자치마·꽃신·족두리까지 그려 넣었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십장생도 10폭 병풍



책가도



호작도



'예'를 형상화한 문자도

### 강력계 검사 며느리 조폭가문 입성기

가문의 위기-가문의 영광2 감독: 정용기 출연: 신현준, 김원희, 김수미 상영시간: 110분 등급: 15세 이상

'무대포' '무모함' '무식', 이렇듯 영화 '가문의 위기'는 삼무(三無)로 뽐낼 만한 영화 팬들의 웃음 코드를 접속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웃음 핵폭탄의 기폭제는 김수미, 김원희 등 초특급 코미디 배우들의 포진과 그 누구도 박장대소하지 않을 수 없는 황당한 시추에이션의 설정.

특히 절대 카리스마 흥행자(김수미 분) 여사의 진지하고 무겁게 넘치는 코미디 파워는 상상을 초월한다. 국내 최고의 명문가(?) 조폭 백호파의 두목 흥행자 여사. 그녀가 이끄는 조직은 날로 승승장구하고 슬하의 세 아들 또한 나름대로 조직의 기동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삼형제는 흥행자의 막달과 구박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 바로 가문의 체질개선을 위해 '엘리트 며느리'와의 결혼을 주문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흥행자는 세 아들에게 자신의 환갑잔치 때까지 무조건 큰 며느리감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린

다. 며느리 감 물색에 나선 큰 아들. 드디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몸장' '얼굴짱' '학벌짱' 며느리감을 발견하고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 청순가련형 여인 인줄만 알았던 그녀의 직업이 조폭 때려잡는 강력계 검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들의 인연은 좌충우돌 꼬여만 가는데...

장차 남편과 시어머니 될 사람에게 권총을 겨누고 수갑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검사의 직분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조폭의 길을 걸을 것인가? 감독은 이런 선택과 판단의 몫을 코믹적 여운이 넘는 기법으로 관객들에게 되묻는다. 노병길 기자 sasiman@buddhapia.com



전시

### 추상과 만난 화려한 전통미

엄옥경 개인전 '향기 속으로'

전통미에 현대적 추상성을 가미한 작품으로 활동 해온 엄옥경씨가 다섯 번째 전시회를 9월 7~13일 서울 관훈동 갤러리 수운화에서 개최한다.

엄옥경씨가 그동안 지속해 왔던 작업 '전통적 향기 속으로'의 연장선상에서 전통미를 탐구한 결과가 이번 전시회에 오롯이 드러난다. 자수, 민화문양 등



아크릴 재료를 선명한 색채를 그려낸 작품. '향기 속으로-오리 연방, 오리 버들'

민족의 생활 사상 문화로 자리잡은 상징적 표현양식과 북을 비는 기원의 의미가 깃든 주제들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평면의 아크릴 재료와 금속에 요철을 만드는 스텝핑, 전사, 드로잉 기법이 가미된 이번 작품전은 염원과 신앙, 철학적 관조가 담긴 한국 전통미의 현대적 변용을 보여준다. 일회성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내면에 흐르는 미감에 대한 사색과 정체성을 일깨우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작품마다 물씬 풍긴다.

'향기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제작된 작품들은 담, 활옷, 연꽃 오리연방 오리버들, 조각보 등이다. (02)730-5077 김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공연

### 니르바나 필하모닉 후원 음악회

9월 10일 범어사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후원회(회장 박금표)는 9월 10일 저녁 7시 부산 범어사에서 '제 4회 작은 음악회'를 연다. 이에 앞서 오후 3시부터는 무비스님의 <범화경> 강의 회향법회가 병행된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저녁 7시부터 열리는 음악회는 흥석택, 권중대씨의 클라리넷 이중주로 시작된다. 이어 안산 천수사 주지 지허 스님이 찬불가인 '백팔번뇌'와 '야망'을, 강혜운 학생(고대 문창과 2년)이 '에브리 하트'를 선사한다. 또한 스님과 강씨가 듀엣곡 '불교란 무엇인가'도 함께 부를 예정이다. 남성 3인조그룹 '순야바'가 <반야심경>을 랩으로 편성한 '반야심경'을 음성 공양한다. 2부에서는 니르바나 오케스트라가 가곡 '정신에 살리라'와 찬불가를 연주한다. (019)512-8004

김주영 기자 jkim@buddhapia.com

**방송 프로그램**

5월 23:00 뮤직 N 유영석입니다	5월 21:10 TV법회
6월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6월 02:40 불교TV스페셜
7월 21:05 영화음악실	7월 15:50 열린마당
8월 07:05 아침저널	8월 17:30 산중대담
9월 09:05 행복한 미소	9월 20:30 명상음악산책
10월 06:25 오늘은 좋은 날	10월 07:30 조선불교탄압사
	11월 20:00 또 다른 수행 '사경'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다시 듣고 싶은 노래(9월 9일 20:05-21:00)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김병조의 정겨운 입담으로 다시 들을 수 있다. 틈틈이 소개되는 '명심보감'의 구절을 통해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다.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불교텔레비전: 현각 스님의 살아있는 금강경(9월 10일 04:00-05:00) 불교경전을 대표하는 <금강경>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해 본다. 각박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지혜와 도를 일깨워 준다.

**클릭!**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불교문화상품 상품문의: (02)2004-8218-9

백의관음도 축광액자



백의관음도 축광액자는 모든 중생의 애환을 대자대비로 거두어 주고 중생의 근기에 맞게 32응신으로 화현하여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을 형상화한 것. 여기서 '축광'은 기존 야광이 장시간 빛을 받아 단시간 빛을 내보내고 내구성인 취약한 점 등을 보완한 획기적인 발명품.

축광액자는 연색성의 은은한 빛으로 실내장식을 위한 선물용으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어둠속에서도 8시간이상 신비스런 빛을 발산한다. 크기는 180mm x 360mm, 90mm x 180mm 등이 있다. 가격은 1만 5000원.